

# 익산시장기 女야구 3년만 재개

21~22일 · 28~29일

원광대 구장 등서

전국 42팀이 참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하던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여자야구연맹은 제11회 익산시장기 전국 여자야구대회가 오는 21일 개막한다고 17일 밝혔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21~22일, 28~29일 2주간 4일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는 익산시국가대표훈련장과 원광대 야구장 용안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2개 여자야구팀 소속 약 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챔프와 퓨처 2개 리그로 운영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챔피언리그 20개 팀, 퓨처리그 22개 팀이 각각 리그 우승을 두고 경쟁한다.

대회 1주차에는 각 리그 예선과 8강전이, 대회 2주차에는 각 리그 준결승·결승전과 3·4



2019년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폐막식 모습.

(사진=한국여자야구연맹 제공)

위전이 치러진다.

2019년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챔피언리그 우승팀인 서울 나인빅스가 2연패를 노리고 지난해 열린 전국여자야구대회 우승팀인 대전 레이디스와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 우승팀인 서울 리얼다이몬즈가 우승에 도전장을

던진다.

퓨처리그에서는 올해 처음 한국여자야구연맹에 등록된 고양 제네시스, 창원 참미야, 당진 주니어 여자야구단, 서울 SBO여자야구단의 선전이 기대된다.

/뉴시스



정읍 평야정 선수단이 지난 14일 익산시 황등면 건덕정에서 열린 '2022 익산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남녀 공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 '직장생활 하면서도 매일 훈련... 결실 맺다'

정읍 평야정 선수단, 익산 서동축제 기념 공도대회 단체전 우승  
개인전서도 박용주·곽창원씨 장년부 2위, 이숙정씨 여자부 3위

정읍 평야정 선수단이 지난 14일 익산시 황등면 건덕정에서 열린 '2022 익산 서동축제 기념 전라북도 남녀 공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도대회에는 전라북도 20개 시정(市)에서 360여 명이 공사가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점검하며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평야정 공사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 부단한 훈련을 한 결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인전에서는 장년부 박용주 씨와 곽창원 씨가 2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이숙정 씨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정읍 평야정에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500여 명의 전국 공사들이 참가하는 '제28주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남녀 공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새만금 인라인마라톤 참가 열기 뜨겁네

전북도, 20일까지 신청 접수 중... 현재 2000명 넘어

제6회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가 6월 12일 새만금양조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인라인마라톤 포스터

대한올림픽 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올림픽 스포츠연맹이 주관하며, 전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첫 대회다.

전국에서 모인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대회는 42km, 21km, 11km 세 가지 코스로 경장 및 비경장 등 8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특히, 11km 비경장 부문은 인라인을 탈 수 있는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어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인라인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양조제에서 개최돼 인라인 애호가 사이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대회로 꼽힌다.

도심 속 코스를 순환하는 타 대회와는 달리, 시원한 바다를 가르며 쭉 뻗은 방조제에서 최고 속도로 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새만금 대회를 다시 찾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이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이래 회차를 거듭하며, 국내 최고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접수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등 접수 시작부터 관심이 뜨겁다.

도는 참가자 포함 5,000명 이상이 새만금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만금 홍보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던 만큼, 방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관광 안내도를 발송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사일에는 새만금을 소개하고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새만금 관련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무국(063-273-1106)에 문의하거나 누리집(http://jinline.com)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대회가 진행되는 6월 12일에는 오전 8시부터 13시까지 새만금 방조제 도로 중 일부가 통제되며, 일부 구간은 수변도로(보조도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이상혁, 버밍엄 다이아몬드리그 불참  
19일 귀국... 7월 세계선수권 준비



이상혁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을 마친 뒤 도하에 머물던 이상혁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상혁은 원래 21일 오후 9시 24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 2차 대회에 출전해 다이아몬드리그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했다.

연맹은 "이상혁이 버밍엄 다이아몬드리그 대회를 건너뛰고, 오는 7월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2020 도쿄올림픽에서 2m35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이상혁은 올 시즌 초반 한층 가파른 상승세를 자랑했다.

2022시즌 실내 세계랭킹 1위(2m36)에 올라있는 이상혁은 실외 세계랭킹에서도 1위(2m33)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뛰어넘어 현역 최강으로 꼽히는 무타즈 에사 바신(카타르)을 제치고 우승했다. /뉴시스

## 이리공고 육상팀, 전국대회서 선전

경북 예천 춘계 중고 대회서

김태희 고등부 해머던지기 1위

임채원 원반던지기서 3위

안상준 포환던지기서 동메달

전북체육회는 최근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51회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에서 이리공고 육상팀이 선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자 고등부 해머던지기 최강자인 김태희가 54m5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원반던지기 임채원은 41m2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고등부 안상준은 포환던지기에서 16m64로 값진 3위를 했다.

한편 이리공고 육상팀은 지난달 열린 전국 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리공고 최진업 육상 지도자는 "선수들이 좋



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